

## 2 종합

# 무역학과 전공 영어 수업 유학생 이탈...해당 강사는 교체

김수현 기자 soo2023@khu.ac.kr

【서울】무역학과 '경영학원론' 강의를 수강하던 유학생 전부가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영어 강의가 한국어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정경대는 지난 12일 해당 강의 강사를 교체했다.

이번 학기 무역학과 경영학원론 수업은 두 개로, 하나는 외국인 전용 한국어 강의고 하나는 영어 강의다. 이중 문제가 된 수업은 영어 강의다.

해당 강의는 수강신청 전부터

영어 강의라는 것이 강의계획서에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수업 전체가 한국어로 진행됐다. 강의 자료와 과제 역시 한국어였다.

이에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 1주차에 해당 강의를 신청한 유학생 전부가 수강 신청을 취소했다.

해당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유학생 수는 3~4명이었다. 정경대 행정실은 수업을 취소한 유학생 2명에게 연락해 영어로 진행되는 다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문제가 된 경영학원론 강의는 9월 12일 4회차 강의부터 강사를

변경했다.

정경대 행정실 박수훈 직원은 "강사는 해당 수업이 영어 강좌라는 사실을 모르고 수업을 맡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영어 강좌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나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해 강사를 교체하게 됐다"고 전했다.

영어 강좌라는 것을 강사가 인지하지 못했던 일에 관해서는 "무역학과 측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경대에서 발생한 일이므로 정경대가 확인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 국제 2차 소통회의 공간 개선 안건 논의



학생 안건은 공간 개선이 주를 이뤘다. 공간관리 문제, 학생 자치·휴식 공간 마련, 실기실 마련 등이다. (사진=최고훈 기자)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국제】지난 27일, 2차 소통간담회가 국제캠 중앙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주요 안건은 공간 개선이었다.

회의는 상반기 1차 소통간담회 결과 보고, 대학 현황 및 주요 사업 공유, 학생 대표자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 대표자 질의는 공간관리 문제, 학생 자치·휴식 공간 마련, 실기실 마련 등으로 공간 문제가 주된 내용이었다.

총학생회(총학)는 공간관리위원회 주최 여부, 공간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진척도에 대해 질의했다. 총학 김준희(기계공학 2019) 부회장은 "1학기 소통간담회 당시, 공간관리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고 정기 회의를 개최해 달라는 안건을 냈다"며 "진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최희섭 행·재정부총장은 공간관리위원회에 대해 "해당 부분은 본부와 단과대학과 TF를 구성해 2학기 동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예정"이라고 답했다. 공간관리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1년 6개월간 캠퍼스 내 모든 공간 전수 조사를 완료했다"며 "공간 사용에 있어 공유 개념을 대폭 넣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내용을 전산화하고,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전자정보대학(전정대)은 전정대, 응용과학대, 소프트웨어융합대(소응대)가 한 건물을 사용해 발생하는 강의실·교수 연구실·학생 자치 공간 부족 문제를 쟁점으로 꼽았다. 전정대 학생회 박여진(생체의공학 2022) 회장은 "공간 확보가 당장 불가능하다면 3개 단과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체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명과학대(생대)는 학생 자치 공간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생대 내 학생 자치 공간은 지하 1층, 8개의 공간이다. 8개의 공간을 동아리 13개, 6개의 학생회가 나눠 사용하고 있다.

생대 학생회 이지연(식품생명공학 2022) 회장은 "심한 경우엔 한 공간에 최대 4개의 동아리와 학생회가 동일한 공간을 사용 중"이라며 "하나의 방이 학생 휴게, 회의, 기품 보관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무관리처 정구승 부처장은 "현재는 모두 사용하는 상황이라 공간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는 생대 행정실에서 조정해야 할 부분이며 행정실과 소통을 마친 상태기에 학생 대표가 행정실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술디자인대(예디대)는 4D아트 융합전공 실기실 마련을 요청했다. 예디대 학생회 박한준(디지털콘텐츠학 2021) 회장은 "현재 도예관 남자 화장실을 4D아트융합전공 실기실로 사용하고 있다"며 "3D프린터를 사용해 유해물질로 인한 안전 위험이 있을 뿐더러 습기에 취약해 천장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체육대학(체대)은 학생 휴게 공간 마련을 말했다. 체대 학생회 유영민(태권도학 2019) 회장은 "동아리방을 제외하면 학생 휴게 공간이 없다"며 "수중 실험실을 개보수해 휴게 공간을 만들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홍충선 국제 학무부총장은 "최근 학장에게 학생 휴게 공간을 특정해 마련했다고 들었다"며 "이번 학기 내에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교재 불법 스캔,  
불법 판매, 불법 공유는  
이제 그만!**

홍보대사  
배우 백석성현

**저작권 지킴이  
바로와 지켜봐요**

**저작권 지킴이 바로**

**©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